



KOTRA 워싱턴 D.C.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(화/목) 배포합니다.



📁 주요 내용

🎯 워싱턴 D.C. 포커스

- (인공지능) 美 AI 데이터센터 개발에 대한 지역 유권자 여론 동향 및 현지 반응 2
- 데이터센터 건설은 일자리·투자 기대와 전력요금·환경 부담 등 지역 여론을 양분시키며 정치 이슈로 부상

🌐 경제통상 동향

- (미·중 관계) 미-중 정상 통화 결과, 4월 정상회담을 앞둔 주요 현안 점검 4
- (핵심광물) 美 국무부, 중국 공급망 견제를 위한 첫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개최 5
- (선거) '26년 美 중간선거 9개월 앞두고 의회 권력 재편 가능성 부각 6

🏛️ 의회법안 동향

- 예산안, 에너지, 핵심광물, 관세 등 4건 7

💬 이시각 헤드라인

-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8
-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9

📅 워싱턴 D.C. 주요일정

2.6(금)	• 1월 고용보고서 (U.S. employment report)
2.9(월)	• 애틀랜타 연준의장 연설(Atlanta Fed President Raphael Bostic speaks)
2.10(화)	• 12월 수입물가지수(지연) (Import price index (delayed report))
2.11(수)	• 1월 미국 고용보고서(U.S. employment report)

(인공지능) 美 AI 데이터센터 개발에 대한 지역 유권자 여론 동향 및 현지 반응

1. 개 요

□ AI 데이터센터 개발 관련 설문 배경 및 결과

- AI 확산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이 추진되는 가운데, 미국 내 여론은 찬반이 뚜렷하게 갈리지 않은 상황

- 최근 폴리티코-퍼블릭퍼스트(Public First) 설문*에서 응답자의 37%는 “거주 지역 데이터센터 건설에 찬성”, 28%는 “반대”, 36%는 “잘 모르겠다(중립)” 응답, 상당수 유권자가 향후 정책에 따라 입장이 바뀔 수 있는 것으로 분석

* 1월 16~19일 미국 성인 2,09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. 결과는 연령·인종·성별·지역·학력 등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해 보정했으며 표본오차는 ±2%포인트

- 데이터센터 건설 찬성 요인으로는 일자리·투자·세수 확대(37%), 우려 요인으로는 전력요금 상승(29%) 등이 언급. 전문가들은 AI 데이터센터가 경제·에너지·환경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향후 ‘지역형 선거 쟁점’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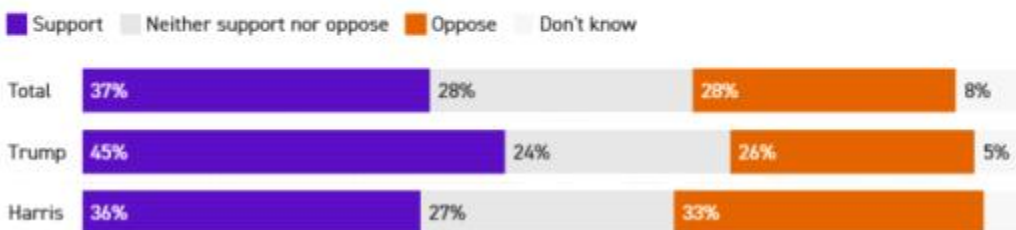
* 데이터센터가 중간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 17%, 거주 지역의 선거 쟁점이 될 것 응답 57%

〈지역 데이터센터 개발에 대한 유권자 찬반 여론〉

※ 2024년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에 따라, 거주지 3마일(약 4.8km) 이내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계획에 ‘찬성/반대/중립’ 입장을 밝힌 응답 비율

More than a quarter of voters might be persuadable on local data center development

Percentage of people, split by their 2024 vote, and if they would support or oppose a plan to build a data center within three miles of where they live



* 전체: 찬성 37%, 반대 28%, **트럼프**: 찬성 45%, 반대 26%, **해리스** 찬성 36%, 반대 33%

** 유권자 4명 중 1명 이상은 지역 데이터센터 개발에 대해 입장이 바뀔 수 있는 ‘중립’ 응답

[자료: 폴리티코, 퍼블릭퍼스트]

2. 상 세

□ 지지 정당별 데이터센터 개발에 따른 입장차 평가

- (찬성) 일자리·투자 기대, (반대) 전력요금·환경 부담…인식 격차 확대 조짐
 - 매디슨(위스콘신), 챌들러(애리조나)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요금·소음·물 사용 증가, 일자리 창출 효과 미흡 등을 이유로 신규 데이터센터 유치를 거부하는 등 지역 단위 저항이 확산되는 모습
 - 반면, 전국 조사에서는 데이터센터를 도로·송전선 등 다른 인프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며, 특히 사업 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수록 잠재적 경제적 이익에 더 주목하는 것으로 조사
 -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공화당 지지층이 민주당 지지층보다 데이터센터 건설에 우호적 (공화 46% 찬성 vs 민주 38% 수준), 대형 기술기업을 공화당과 더 가깝다고 인식하는 응답도 절반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이슈가 점차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

□ 현지 반응 및 전망

- 업계는 “인프라 투자·지역경제 기여” 강조…전력요금·규제 강화 논의 계속
 - 주요 IT 기업 및 데이터센터 업계는 “데이터센터가 전력비를 자체 부담하고, 신재생·고효율 전원 투자와 지역 세수·일자리 확대에 기여한다”고 강조, 전력 요금 상승 원인을 노후 전력망·지역 전력수급 구조 등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
 - 반면 일부 민주당 주지사·의회는 전력요금·환경 부담을 이유로 데이터센터에 전력망 투자 부담, 산업용 전력요금 차등, 물 사용·배출 규제 강화 등을 요구, 여론 조사에서도 “데이터센터를 더 지을 경우 기업이 추가 전력비를 부담해야 한다”는 응답이 다수
 - 정치 분석가들은 AI 데이터센터가 전력요금·지역개발·환경을 둘러싼 ‘지역형 선거 쟁점’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고, 특히 스윙 스테이트와 교외 지역에서 민주·공화 양당 모두에게 기회이자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평가

▪ 작성자 | 워싱턴 D.C. 무역관 김준희

▪ 자료원 | 폴리τικο([2.4](#)), Navigator ([‘25.12.16](#)), VOX ([‘25.12.8](#)), NPR ([‘25.10.14](#))

(미·중 관계) 미·중 정상 통화 결과, 4월 정상회담을 앞둔 주요 현안 점검

- (개요) 미·중 정상, 4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선상으로 주요 현안 논의
 -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정상 통화를 통해 무역 관계, 대만 문제, 에너지·석유·가스 구매, 농산물(대두) 구매 확대 등 다양한 현안 논의(2.4)
 - 현지 언론은 양 정상 간 통화를 4월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정상회담 의제 및 전반적 협의 환경을 사전에 점검한 차원의 통화로 평가
- (상세) 정상 통화 결과 발표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 확인
 - (미국 측)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강조하는 등 미·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협력 기조 유지
 - (중국 측)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를 미·중 관계의 최우선 핵심 현안으로 명시하고, 중국의 영토·주권 입장 재확인 및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한 신중한 대응 요구
 - 미국은 대만 문제를 다수의 의제 중 하나로 제한적으로 언급한 반면, 중국은 이를 미·중 관계의 최우선 핵심 사안으로 규정하며 양국 간 대만 문제에 대한 접근 차이 부각
- (반응) 중국의 대만 의제 선제화, 미국의 전략적 관리 기조 유지 평가
 - 현지 언론은 중국이 4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만 문제를 미·중 관계의 핵심 의제로 제기함으로써, 정상회담 논의 구도를 사전에 설정하려는 의도로 해석
 - 미국은 대중(對中) 관계에서 실무 협력 분야와 안보 민감 현안을 구분해 접근하면서,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대만 관련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

■ 작성자	워싱턴 D.C. 무역관 정연호
■ 자료원	폴리티코(2.4), 뉴욕타임스(2.4)

(핵심광물) 美 국무부, 중국 공급망 견제를 위한 첫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개최

- (개요) 미 국무부는 첫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성과 발표(2.4)
 - 미 국무부는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견제, 동맹국 공조를 통한 핵심광물·희토류 공급망 재편, 공동 대응 논의를 위한 미국 주재 첫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개최
 - * 유럽연합 및 한국, 일본, 호주, 사우디아라비아, 태국 등 포함 54개국이 참석
 - 동맹국 및 파트너 협력 강화, 투자 촉진,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공동 합의 도출
- (상세)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, 유럽연합, 일본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합의, 11개국과 신규 핵심광물 양자 협력 MOU 체결 등으로 동맹국 협력 강화
 - 멕시코와 북미의 핵심광물 공급망 공동 강화를 위한 ‘핵심광물 행동계획(Action Plan)’을 발표, △우선 관리 핵심광물 목록 식별, △국경 조정 가격 하한 도입 가능성 검토, △가격 하한을 구속력 있는 다자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 협의
 - 미국-EU-일본 간 공동의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을 개발하기로 합의, △무역정책 조율, △국경 조정 가격 하한 도입, △공급망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정책·규범 논의
 -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과 멕시코 및 EU-일본 간 합의가 구속력 있는 다자간 핵심광물 무역협정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
 - 또한, 밴스 부통령은 개회사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견제를 위해 동맹국 중심의 우대 무역권역(preferential trade bloc) 구축 계획* 발표
 - * 핵심광물 preferential trade bloc(우대 무역권역)은 단계별 기준가격(reference prices)을 설정하고, 조정 가능한 관세(무관세 혹은 우대 관세)로 가격 하한(price floor)을 유지하는 구조
 -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핵심광물·희토류 의존도 축소를 위해 **핵심광물 공급망을 양자·다자 협력으로 확장하며 중국 중심 공급망을 대체하는 전략**으로 재편 중

■ 작성자	워싱턴 D.C. 무역관 문현주
■ 자료원	폴리티코(2.4), 국무부(2.4)

(선거) '26년 美 중간선거 9개월 앞두고 의회 권력 재편 가능성 부각

- (개요) 중간선거의 여당 불리 관례 속 민주당 4석 확보 여부 주목

-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의석 확대에 성공한 사례는 링컨 이후 41회 중 4회 (1902·1934·1998·2002년)에 불과하며, 최근 5차례 선거에서는 평균 31석 손실 기록
- 트럼프 대통령 국정 지지율(40%대 초반) 저조, 공화당 하원 의원 28명 불출마 등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.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 전환 가능

- (상세) 공화당 '선거구 재획정' 효과에도 경합구 축소·상원 지형 우위

- 하원의 경우, 공화당은 '24년 대선에서 근소하게 승리하거나 패배한 23석만을 방어*하고 있으며 미주리·노스캐롤라이나 등 9개 선거구 재획정이 유리하게 작용
 - * '18년 공화당이 방어해야 했던 의석수는 38개
-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방어해야 할 22석에 트럼프 승리 주 21석이 포함되어 안정적 지형 유지, 민주당은 조지아·미시간(트럼프 승리 주) 및 미네소타·뉴햄프셔 등 경합주 방어에 더해, 일부 현역 불출마로 인한 불리한 여건에 직면
- 선거 결과를 좌우할 변수로는 △경제 상황 △대법원 투표권 법(Voting Rights Act) 관련 소수인종 지역구 판결, △트럼프의 선거관리 개편 시도 및 부정 선거 주장으로 신뢰성 저하 지적

- (반응) 상·하원 다수당의 이원화시, 통상·예산 입법 교착 전망

- 하원은 민주당의 다수당 탈환 가능성이 높아,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견제 강화 및 통상·예산 분야 입법 지연과 갈등이 예상
- 선거 제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, 의회 권력 구도의 재편이 미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으로 부상

■ 작성자	워싱턴 D.C. 무역관 James Lee
■ 자료원	Council of Foreign Affairs (2.3)

의회법안 동향

구분 (현행일)	법안 (발의일)	대표 발의자	법안 및 주요 내용
예산안 (2.3)	H.R.7148 (하) (‘26.1.20)	Tom Cole (공)	<p>〈2026 회계연도 통합지출법(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, 2026)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통령 서명, 예산안 통과 2026 회계연도 정규 지출법안 12개 중 3개 지출법안을 한번에 편성하는 지출 패키지
에너지 (2.3)	H.R.7329 (하) (2.3)	Josh Harder (민)	<p>〈국내 에너지 확보법(FREEDOM (Fighting for Reliable Energy and Ending Doubt for Open Markets) Act)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에너지 산업 전반에 기술 중립적 인허가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 심사, 새로운 인허가 보호, 집행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법 사법 심사 가속화, 인허가 프로젝트 보호, 강제 기한 설정, 위험 완화 프로그램 및 준수 보고 의무화를 통해 신뢰성 있는 에너지 공급을 강화
핵심광물 (2.4)	H.R.4090 (하) (‘25.6.23)	Pete Stauber (공)	<p>〈핵심 광물 우위 확보법(Critical Mineral Dominance Act)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하원 통과 내무부에 국내 광물 생산, 특히 연방 정부 소유 토지에서의 생산을 대폭 확대·신속화하도록 지시 리튬·코발트·니켈·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대외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법안
관세 (2.4)	H.R.7373 (하) (2.4)	Jimmy Panetta (민)	<p>〈중국 무역 부정행위 배상법(China Trade Cheating Restitution Act)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15년 무역원활화·집행법을 개정해 반덤핑·상계관세 분배 시 이자 산정 방식을 조정하고, 2000~2014년 사이에 지급되지 못한 대중 반덤핑 관세를 미국산 마늘·꿀·가재 생산자에게 특별 분배하도록 하는 법안

* 미국 동부 시간 2월 5일 15시 모니터링 기준

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

언론사	주요 보도내역
The Wall Street Journal	<p><u>Exclusive Trump Administration to Make It Easier to Fire 50,000 Federal Workers</u> ([단독] 트럼프 행정부, 연방 공무원 5만 명 해고 문턱 낮춰)</p> <p>미국 인사관리국(OPM)은 고위직 경력 공무원들의 징계 및 해임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해. 동 규칙은 약 5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에 영향을 미칠 전망</p>
The Washington Post	<p><u>Spanberger takes further steps to remove Virginia from ICE operation</u> (스팬버거 주지사, 버지니아 내 ICE 단속 중단 추진)</p> <p>애비게일 스펀버거 버지니아 주지사는 주 법 집행기관과 ICE간 파트너십 계약을 종료할 것을 지시. 주지사는 ICE의 나쁜 전술, 잘못된 훈련 등이 법 집행기관에 대한 공공 신뢰를 훼손시킨다고 비난</p>
The New York Times	<p><u>TrumpRx Is Set to Go Live on Thursday</u> (의약품 직구 플랫폼 'TrumpRx' 개봉박두)</p> <p>트럼프 행정부는 의약품 직접구매 플랫폼인 TrumpRx를 오늘 오후 7시에 공개할 예정. TrumpRx에서는 위고비, 휴미라 등을 구입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보험이 있을 경우 TrumpRx에서 구매시 가격이 더 비쌀 것이라고 경고해</p>
CNN	<p><u>Marco Rubio drops one of his job titles, while still juggling several other hats</u> (루비오 국무장관, 직함 하나 내려놨지만 여전히 일인다역)</p> <p>연방공석개혁법에 따르면 임시 공무원이 직위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므로,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기록보관관으로서의 역할이 종료돼. 루비오는 국무장관, 국가안보보좌관 등 여러 가지 직책을 겸임하고 있어</p>
USA Today	<p><u>Trump announces event to 'rededicate America as one nation under God'</u> (트럼프, '신 아래 하나의 국가' 재천명 행사 발표)</p> <p>트럼프 대통령은 5월 17일 내셔널몰에서 미국 25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미국을 신 아래 하나의 국가로 재천명하는 기도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발표. 수정헌법에 의하면 교회와 국가 분리 원칙이 명시되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를 미국 정치와 문화의 중심으로 되돌리겠다고 강조해와</p>

* 미국 동부 시간 2월 5일 15시 기준

워싱턴 D.C. 무역관 공지사항

◆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, **경제통상리포트** (과거 리포트 : [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6-05	트럼프 정부의 IEEPA 관세 대안으로 수입 면허제 활용 가능성 검토	2026.2월
US26-04	트럼프 행정부 출범 1주년 경제·통상 성과 및 현지 평가	2026.2월
US26-03	2026년 주요 통상 일정과 미국 통상정책 환경 변화 전망	2026.1월
US26-02	유엔과 세계은행이 전망한 2026년 세계 경제 및 정책 제언	2026.1월
US26-01	2026년 글로벌 핵심 리스크와 미국 정책 환경 변화 전망	2026.1월
US25-51	골드만삭스 2026년 세계경제 전망 주요 내용 및 시사점	2025.12월
US25-50	美 2026 국방수권법(NDAA)로 살펴본 미국 국방정책 방향	2025.12월
US25-49	미·중 경제안보 검토 위원회(USCC) 의회 연례 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	2025.12월
US25-48	워싱턴 국제무역협회 'Trade & Tech Summit' 내용 및 시사점	2025.12월
US25-47	세계무역기구(WTO) 개혁을 둘러싼 미국의 인식 전환과 통상 질서 변화	2025.12월
US25-46	2026년 USMCA 공동재검토 주요 일정 및 3국 입장과 현지 평가	2025.12월
US25-45	2025년 백악관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특이점과 경제무역 함의	2025.12월
US25-44	美-中 반도체 디커플링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	2025.12월
US25-43	트럼프 정부, 미국형 소버린 AI 구축을 위한 『제네시스 미션』 출범	2025.12월
US25-42	美 연방 대법원 IEEPA 관세 재판 동향 및 트럼프 관세 플랜 B 전망	2025.11월
US25-41	美 연방정부 섯다운 종료 및 예산 합의 관련 주요 동향	2025.11월

◆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, **코트라 인터뷰 시리즈** (과거 인터뷰 : [유튜브 KOTRA TV](#))

인터뷰 번호	제목	바로가기
코인시-25 (2026.1.24.)		
코인시-24 (2026.1.23.)		

문의	이메일	전화
	jwshim@kotra.or.kr	+1) 202-857-7919
	shim.nature@kotra.or.kr	